

## 특하면 터지는 비리·잡음에 ‘재시험 악순환’

시험지·답안지 유출, 출제오류 등 끊이질 않아

“평가 혁신, 내부 자정, 공정성 향상 노력 필요”

공정성과 신뢰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등학교 시험평가에서 크고 작은 비리와 석연찮은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재시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9면〉**

26일 광주·전남 일선 고등학교에 따르면 시험지 사전유출이나 문제지 분실, 출제 오류 등으로 중간 또는 기말고사를 다시 치르는 사례가 해마다 적게는 수 십 건, 많게는 수 백 건에 이르고 있다.

2017년에 광주 223건, 전남 79건에 이어 2018년에도 광주 150건, 전남 70건의 재시험이 치러졌고, 2019년에는 1학기에만 광주와 전남을 합쳐 재시험 사례가 2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68개 학교에서 253개 문항에 대해 재시험이 치러졌다.

지난 11~13일 대동고에서 치러진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사건의 경우도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시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날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 “빠른 시일 안에 학교성적관리위원회를 소집

해 재시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판단에서다.

이 학교에서는 4년 전인 지난 2018년에도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지가 통째로 유출돼 행정실장과 당시 학교운영위원장인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학생들은 재시험을 치른 바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를 받아 공지한 뒤 재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상당수는 복수정답이나 정답이 없는 경우, 참고서 문항 전제 등 출제오류가 원인이지만 사전 유출 의혹과 문제지·답안지 분실, 엉뚱한 시험지 배포 등 관리 문제로 인한 재시험도 적잖았다.

이처럼 재시험이 끊이질 않는 것은 대학입시에서 내신 비중이 큼에도 과거 숙명여고 사태와 시험지 유출 등으로 내신불신이 증폭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성적관리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6일 오후 광주 서구 대동고등학교 본관 4층 2학년 교무실이 잠겨있다. 대동고에서는 지난달 말 교내 재학생 A(17)군 등 2명이 2학년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들의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렸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두 정답’ 처리하는 기존의 방식은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부작용과 잡음을 없애기 위해 아예 재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광주교사노조 한 관계자는 “대동고 사례를

비롯해 재시험이 치러질 때마다 내신, 수시전형 불신과 반대급부적으로 정시확대 주장이 나오지만 근본적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론적인 하지만 큰 틀의 평가혁신과 함께 교육계의 자정 노력, 시험 공정성 향상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한국인 기대수명 83.5년

OECD 2위...일본 84.7년 1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 비율은 여전히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지난 4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2’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공표했다.

건강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일본 84.7년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 80.5년과 비교하면 3.0년 더 길다.

질병의 예방 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에 따른 사망률을 의미하는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7.0명으로 OECD 평균인 215.2명보다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스위스, 이스라엘,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8번째로 낮았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률은 25.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1.1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OECD 회원국 중 극단적 선택률이 1위다. 지난 10년 전인 2009년 35.3명과 비교하면 9.9명 줄었다.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낮았다.

건강 위험 요인을 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을 하는 사람의 비율인 흡연율은 15.9%로 OECD 평균인 16.0%와 비슷했다. 1인당 주류 소비량은 7.9로 OECD 평균(8.4)보다 적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키와 몸무게 측정에 의한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7.8%로 일본(27.2%)에 이어 두 번째로 적게 나타났다. OECD 평균은 58.7이다. 단 흡연율과 주류 소비량은 10년간 감소 추세인데 반해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건료자원을 보면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 3.7명이며 가장 높은 순위인 오스트리아는 5.4명이다.

양경진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은 “OECD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비교 가능한 우리나라의 보건료 통계생산을 확대하고, 국민과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채본부

## 7개 국내 국제공항 ‘32개 노선’ 운항 재개...코로나 대유행 이후 2년5개월만

“복원 노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수요 회복에 전력”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내 7개 지역 국제공항(인천공항 제외)이 26일부터 국제선 하늘길 운항을 재개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 2020년 2월 운항이 중단된 지 2년5개월만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5월부터 대구와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6월 김포·제주·양양 ▲7월 무안, 청주공항까지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대구와 김해공항이 각각 지난 5월28일 베트남 다낭 노선(주4회)과 31일 일본 후쿠오카 노선(주2회)의 운항을 시작했다.

또한 제주공항은 지난 지난달 2일부터 태국 방콕의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다. 양양공항도 지난달 24일부터 필리핀 클라크 노선을 주2회 운항 중이며 무안공항도 같은달 14일부터 베트남 나트랑 노선 운항을 시작해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다.

특히 한일 양국의 수도 관공공항인 김포-하네다공항을 연결하는 항공노선은 지난달 29일부터 주8회로 운항을 시작했고, 내달 1일부터는 주28회로 운항이 점차 확대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던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무안·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총 9개국 21개 도시 32개 노선의 운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공사는 국제노선 재개를 위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 주요국가의 해외공항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항공사와 여행업계 대표자 간담회 등과 면담을 통해 국제선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국내 입국의 걸림돌이었던 해외입국자 검역 절차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지속하는 등 국제선 운항 조기 정상화를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에 따라 공사는 26일 전국 국제공항의 국제선 재개를 축하하기 위해 ‘공항, 새로운 시작 Fly Again’이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2년 5개월의 긴 어둠을 뚫고 마침내 7개 지방국제공항의 국제선이 모두 열리는 등 국민들이 해외 출국시 선택할 수 있는 공항의 폭이 대폭 넓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복원 노선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수요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이기성기자

2022~2023 문화관광 지정축제

# 제15회 정남진 강릉 문화축제

7.30(토) ~ 8.7(일) / 9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